

體系的 地域研究의 꿈

—西江大 東亞研究所의 研究設計—

李 相 禹

(西江大 東亞研究所長)

I. 變化에 適應하는 智慧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 적응의 기초가 되는 期待構造를 깨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험한 사태일지라도 그 위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긴장은 되어도 불안을 느끼지는 않는다. 대응조치를 미리 생각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의 변화에 대한 미흡한 이해로 지금 민족적 불안을 겪고 있다. 우리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美國, 蘇聯, 中共, 日本의 변화하는 政策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없어 바른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美國과는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蘇聯과 中共은 언제까지 敵으로 맞서야 옳을까? 日本과의 관계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모두가 답을 하는 데 있어서 自信이 서지 않는 물음들이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 묶어 놓은 民族分斷問題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단의 源泉은 뭘니뭘니 해도 共產主義 理念과 體制이다. 같은 민족성원이 사는 나라의 북쪽 땅에 共產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도 치르고 하루하루를 긴장시키는 뼈아픈 대결을 벌여 왔다. 우리를 괴롭히

는 共產主義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북한에 자리잡은 共產主義는 보편적 공산주의와 어디까지 같고 어디까지 다른가? 이 體制의 變化機轉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 中共 共產主義, 北韓 共產主義 등 아시아 共產主義는 아시아의 어떤 政治文化 풍토 속에서 수용, 변환, 발전되어 온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시아 共產主義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길인가?

이러한 급박한 政治文化 밖에도 우리가 民族社會 발전의 航路를 잡아가는 데 있어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많다. 우선 하루가 다르게 급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經濟환경의 적응문제가 있다. 제한된 자원과 좁은 공간 속에서 여러 앞선 나라와 더 많은 開發途上國들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민족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이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나라 안에서의 富의 分配 體制를 합리화시키는 문제, 나아가서 이웃을 돕고 인류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문제까지 수많은 과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과제도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몇 천년 가꾸어 온 우리의 문화전통에서 무엇을 지키고 더 가꾸며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가름의 선택문제가 있고 이웃문화, 세계문화와의 接觸의 과정에서 무엇

을 受容하고 또한 남에게 무엇을 보태줄까 하는 문제가 있다. 과거처럼 백 년 이백 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文化移入이 아니라,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바깥문화의 폭포 속에서 우리가 문화적 주체성을 지니며 인류문화의 발전 潮流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文化的 統整性(integrity)을 지니 나가려 한다면 엄청난 환경분석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바른 적응을 위한 절박한 환경연구의 상황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폭풍과 노도같은 이 急變의 환경 속에서 침착하게 민족적 지혜를 짜내어 수렴해 나가는 體系的인 研究기기와 인력을, 그리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나라의 힘은 단순한 국력요소의 총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국력요소를 서로 연관시켜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엮어 나가는 힘의 조직능력이 보배져야 국력요소들이 나라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조직관리능력은 관리體制와 직결되는 것이다. 구술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부분적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어도 이것을 한데 집적해서 체계화하는 管理체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40년에 전국 37년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無에서 출발하였던 우리의 고등교육기관은 그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하여 이제 대학 수준의 학교만 해도 100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그 밖에 수많은 官立, 民立의 독립연구기관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양성했거나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했거나 해서 많은 고급 전문인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을 과연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研究所나 研究體制가 마련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은 한 사회의 두뇌와 심장에 해당되는 기구이다. 그 사회가 헤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회가 지녀야 할 바른 良心을 간직하고 있는 '智慧와 良心의 堡壘'가 바로 대학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학 수준을 살피면 그 나라의 수준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대학은 1차적으로 研究를 하는 곳이고, 2차적으로 새로운 고급인력을 훈련시켜 사회에 공급하는 곳이고, 3차적으로 사회에 각종 봉사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실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앞서서, 研究기구를 갖추고 研究員을 확보하고 研究環境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학에 부설된 수많은 研究所는 바로 이러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대학인의 뜻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 대학에는 최소한의 수준에라도 이르는 연구소가 별로 없다. 수에 비해 질이 너무 빈약해서 研究所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의 대학부설연구소들의 실태는 특히 한심하다. 학교에서 일정한 연구비와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연구소는 극소수이고 독립된 자료실을 가지고 있는 곳도 몇 안되며, 최소한의 研究人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아다도 실제로 1인이 研究所 간판을 지키고 있는 연구소도 허다할 것이다. 나라와 사회의 무관심, 학교당국의 무관심, 대학 제정의 궁핍, 학자들의 열의 부족 등 많은 이유가 거론되겠지만 누구 탓이든간에 연구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은 현실이다. 이렇게 놓아 두어도 좋은 걸까?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 소련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 온 미국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는 거의 없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회 특성, 그들의 경제, 그들의 정치 등에 대하여 기초 교과서 정도의 연구물을 내어놓을 만한 연구소도 없다. 단편적인 논문 정도가 이곳 저곳에서 간행되는 정기·비정기 간행물에 실려 가끔 나오고 있을 뿐이다. 東南亞 등 조금 먼 이웃에 대해서는 거의 不毛 상태라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에 몇몇 대학에서 地域研究에 중점을 둔 意慾의인 研究所를 개설하기 시작하고 있어 아주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맡은 바 사회적 책임의 하나인 研究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까? 너무 싸이작아서 이른 樂觀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II. 西江東亞研究所의 현황과 꿈

西江東亞研究所는 1981년 11월에 “東아세아地域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담당할 研究員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것”을 목적으로 미학 직할 연구소로 발족하였다. 이 연구소는 東洋史의 원로 學術院 會員이신 全海宗 교수와 韓國史의 원로이신 李光麟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구상되었으며 미국 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의 財政지원 약속으로 발족되었다. 人文·社會科學 영역에서 學際間研究(interdisciplinary studies)를 떠 나갈 계획으로 이 研究所는 발족 당시부터 政治學, 經濟學, 語文學, 歷史學, 社會學 영역의 專門研究人들로 운영위원회 및 研究委員會를 구성하였고, 校外的 研究委員들의 참가를 위해 발족 때부터 客員研究委員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4년이 된 현재, 이 연구소는 語文學研究室(실장: 李承旭), 歷史學研究室(실장: 李光麟), 經濟學研究室(실장: 李泰旭), 政治思想研究室(실장: 金弘明), 社會文化研究室(실장: 朴商台), 中國研究室(실장: 金翰奎), 日本研究室(실장: 空席) 등 7개 연구실과 編輯室(실장: 劉載天), 資料室(실장: 崔載賢) 등의 2개의 지원 기구를 갖춘 연구소로 성장하였으며 研究委員 29명, 客員研究委員 59명을 망라하는 연구기구로 되었다.

研究 대상영역은 현재 韓國, 中國, 日本 등 東北亞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곧 蘇聯과 東南亞를 추가하려 하고 있으며 學問領域에 있어서는 人文·社會科學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研究所 활동은 크게 長期基礎研究, 政策研究 등 研究活動과 定期學術誌인 「東亞研究」발행 등의 발간 활동 그리고 月例發表會, 敎授세미나 및 年例 國際學術會議 등의 學術討論會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28차례의 月例發表會와 5차례의 교수 세미나, 그리고 “마테오릿치 中國 도착 400周年기념 國際學術會議”(1983년)를 개최하였고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 受容: 韓·中·日 比較”(1985년)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長期基礎研究에서는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진행중인 “아세아 共產主義研究”를 비롯하여 東·西洋의 文化接變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20세기 아세아 문화의 특성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政策研究 영역에서는 南·北韓 經濟協力を 위한 經濟體制相應性研究, 統一意識조사 등 國家的인 常面課題인 南·北韓 統一과 관련된 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中國社會研究를 지속하는 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미개척인 東南亞研究를 새로 개척하려 하고 있으며, 韓·日關係史를 體系化하려 하고 있다.

西江東亞研究所의 研究費는 앞서 소개한 미국의 기독교연합재단 지원금(年平均 2만불 수준), 학교지원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民間財團의 지원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 研究所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研究員 훈련과 관련, 大學院生에 대한 체계적 훈련은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敎科課程, 學點制度 등 大學制度와의 調和문제, 그리고 財政문제 등이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학 부설 연구소의 무시 못할 역할은 外國과의 學問交流의 媒體역할이다. 海外學術資料의 신속한 수집, 전파, 그리고 學者交流를 통한 지식의 교환, 海外學者들과의 공동연구 등을 기획 실시하여 개개인 研究員의 對外 접촉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기능인데, 불문문서 취급에 관련된 까다로운 법규정, 財政의 문제 등으로 아직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學術誌 교환(해외의 약 100개 기관과 실시중)이나 海外碩學 초청 교수세미나 등으로 제한된 기능만을 살려 가고 있을 뿐이다.

西江東亞研究所는 아직 역사 4년의 幼年기에 머물러 있으나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설립 당시의 꿈인 “東亞研究의 世界的 中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III. 大學附設研究所 育成的 길

大學附設研究所는 설치되어 있는 大學만을 위

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이 나라,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公共性을 인정한다면 나라와 사회가 모두 나서서 키워 주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 당장에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우선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學校 자체가 研究所의 기능을 인정하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아직도 研究에 직접 종사해 보지 않은 분들이 학교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研究所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 해줄 수 있는 지원도 안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研究所에 연구공간 배정을 안 해주어 간판만 가지게 만든다거나, 資料센터로서의 研究所 기능을 이해 못해 대학 중앙도서관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資料室 운영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예는 非一非再하다. 더구나 敎授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여 교수의 본분인 研究를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닌 '私的' 활동으로 여기는 학교조차 있다. 私立학교인 경우, 設立者나 財團에 研究所의 意味를 바로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로, 정부에서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다. 大學의 研究所 운영을 대학의 고유기능으로 하여 대학설치 운영감독권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요 연구소를 선별하여 직접 재정 지원, 자료 수집 편의제공 등을 해주어야 한다. 전국 40년에 아직 정부에서 학교 연구소를 제대로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 반성할 일이다. 형식적으로 소액의 연구비를 학교별로 배급주듯 할당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학술진흥'을 해 왔다고 한다면 어차구니 없는 일이다.

셋째로, 企業體 등이 社會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솔선하여 학교 연구소를 지원하는 풍토를 하루 빨리 조성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재벌들의 文化財團 중에는 外形으로는 公共재단처럼 꾸며지만 내실에 있어서는 개인재산 보호를 위한 위장재단인 경우도 허다하다. 학교 연구소를 지원해 온 재벌들의 문화재단들이 지금까지 몇 개나 있었는가? 產學協同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 사회에 존재해 왔지만 진정한 뜻에서의 協同을 해본 적은 아직 없었다. 美國의 포드財團, 록펠러財團 등의 先例를 보고 좀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째로, 社會 전체가 학교 연구소를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도 대기업의 재단도 관심이 없다면 사회일반이 公共財團을 설립하여 학교 연구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소의 연구비 규모는 크지 않다. 적은 돈으로 족하다. 1천억 정도의 국민기금만 조성된다면 그 소득으로 전국 대학부설연구소의 기초연구비를 모두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투자에 비한다면 하찮은 돈인데 이 정도도 염출해 내지 못한다면 국민적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IV. 맺음말

西江東亞研究所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면서 곁들여 우리나라의 대학 부설연구소 실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여 보았다. 오늘날의 大學은 象牙塔이 아니다. 민족사회 전체의 눈과 귀, 머리와 심장이 되어 실제로 민족사회에 기여하는 公共기관이 바로 대학이라면, 대학 부설연구소도 그런 시각에서 인식하여 관심을 두고 보살피 주어야 한다.

西江東亞研究所는 東亞細亞地域에 대한 포괄적인 지역연구를 體系化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이다. 관련되는 분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